

명심보감 제176일 엄한 스승이 아니면 성공하지 못한다.

여형공왈 내무현부형 외무엄사우 이능유성자 선의
呂榮公曰 內無賢父兄하고 外無嚴師友 而能有成者는 鮮矣니라.

【解釋】 여형공(呂榮公)이 말하였다.

“집안에 어진 부형(父兄)이 없고, 밖에 엄한 사우(師友)가 없어도 성공한 자는 드물다.”

【解說】 집안에는 어진 부모형제가 있어야 하고 밖에는 엄한 스승과 벗이 있어야 한다. 어우야담(於于野談)으로 유명한 유몽인(柳夢寅)의 누이인 유씨는 홍천민(洪天民)에게 시집가서 아들 서봉(瑞鳳)을 낳았다.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어 혼자 힘으로 아들을 기르고 가르쳐야 했다. 다행히 아들은 남달리 영리한 데다가 말쑥없이 잘 자랐다. 그런데도 이따금 공부에 게을리하는 눈치가 보이면 사정없이 회초리를 들었다.

“너는 불행하게도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다. 세상에서는 아비없이 자란 아이는 버릇이 없다고 손가락질을 하기가 일쑤이다. 나는 네가 그런 아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는 피가 묻은 회초리를 비단 보자기에 잘 싸 장농 깊숙이 간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회초리가 장차 우리 집안의 흥망을 좌우할 것이다. 나는 이 회초리를 때리면서 피눈물을 흘렸지만 네가 커서 이걸 보면 이 어미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유씨 부인은 아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면 외간 남자를 대하듯이 사이에다 병풍을 쳤다.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어미와 자식 사이는 아버지처럼 엄격할 수가 없는 법이오. 이 아이가 너무 영리해서 글을 잘 외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쁜 빛이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고. 그래서 자칫하면 그 애에게 자만심을 길러주겠기에 내 얼굴을 못 보게 하는 것이라오.”

이런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은 홍서봉은 후에 영의정을 지냈으며 문장에도 뛰어났다.

【字義】 呂: 성씨 여 榮: 물이름 형 嚴: 엄할 엄
師: 스승 사 鮮: 드물 선

【註釋】 *呂榮公(여형공) 송(宋)나라 때 학자인 여희철(呂希哲).

근학편(勤學篇)

자왈박학이득지절문이근사면
仁在其中矣
자 | 曰博學而篤志하고切問而近思면
仁在其中矣

해설 공자가 말하기를, 『널리 배워서 뜻을 두렵게 하고 간절하게 묻고 잘 생각하면 어짐(仁)이 그 속에 있느니라.』

즉, 사람이 지식을 넓히게 되면 도리에 밝아지고 신념(信念)이 굳으면 행동이 바르게 된다. 모르는 것은 물어서 깨닫고, 깊이 생각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인(仁)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장자왈인지불학은
如登天而無術하고
學而智遠이면
如披祥雲而觀青天하고
登

고산이망사해
高山而望四海
니라

해설 장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배우지 않음은 재주없이 하늘에 오르려는 것과 같고 배워서 아는 것이 멀면 상서(祥瑞)로운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며 산에 올라 사해(四海)를 바라보는 것과 같느니라.』

즉, 사람은 마땅히 배우는 데 힘써야 된다는 뜻이다.